



‘정청래호’ 출항

민주, 제2차 임시 전국당원대회

정 후보, 총 득표율 61.74%로 신임 당대표 선출
“검찰·사법·언론개혁, 추석 전 까지 완수” 의지
취임 후 전남 나주 수해 복구 활동으로 첫 행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4선·서울 마포출신)이 지난 2일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2차 임시 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에서 새로운 민주당 당대표로 선출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여당 대표로서 개혁 완수와 국민통합을 앞세운 정 대표는 “국민과 당원에게 희망을 주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 대표는 권리당원 투표(66.48%), 국민 여론조사(60.46%) 등에서 높은 지지를 받아 총득표율 61.74%를 기록하며 박찬대 후보(38.26%)를 큰 격차로 제쳤다.

특히 당원 기반에서 압도적 우위를 보이며 ‘강한 개혁 의지’에 대한 기대감을 확인했다.

수락 연설에서 정 대표는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을 더 미룰 수 없다”며 “추석 전까지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해야 민주당도 성공하고, 민주당이 성공해야 국민도 희망을 품을 수 있다”며 당·정·청의 일체감을 강조했다.

개혁 의지 못지않게 정 대표는 당원 중심의 정당 운영도 약속했다.

그는 “전 당원 투표를 상설화하고 역을한 컷오프 없는 공정한 경선을 만들겠다”며 “당원 뜻을 하늘처럼 받들겠다”고 밝혔다.

당대표 선출 직후, 정 대표는 비서실장에 한민수 의원, 정무실장에 김영환 의원, 대변인에 권항엽 의원 등 초선 의원 중심의 실용적 인선을 단행했다.

당의 사무총장 등 주요 당직 인사는 최고위원 회의를 열어 빠른 시일 안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3일 오전 전남 나주로 내려가 수해 복구 현장을 직접 찾아 자원봉사에 나서 수해로 인해 하우스에 피해를 입은 오이 농가를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일손을 도왔다.

정 대표는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땀을 흘리며 “국민과 함께하는 당대표가 되겠다”는 메시지를 몸소 실천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한편 전당대회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김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등 이재명 정부 고위급 인사들도 대거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전당대회에 영상 축사를 통해 “지난 대선에서 증명했던 것처럼 우리 민주당은 하나일 때 가장 강하다”며 “한동안 치열하게 경쟁했다더라도 지금, 이 순간부터는 새로운 지도부를 중심으로 일치단결하자”고 말했다.

또한 “새 지도부와 당원 동지 여러분을 믿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밝혀 많은 박수를 받았다.

이번 당대표의 취임에 대해 민주당 안팎에서는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와 민심 소통이 동시에 기대된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경선을 지켜본 한 전북도민은 “정청래 대표가 법사위원장에서 노련한 회의 진행과 내란 현재 재판 등을 통해 전 국민에게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한 것이 이번 당대표 선출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당대표로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가 관건”이라고 당대표 선출에 기대감을 표했다. /이만호 기자

함께하는 진짜 대한민국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

2025. 8. 1.(금)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한 전국 광역자치단체장과 시·도지사 간담회를 열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김 지사, 이 대통령에 “완주·전주 통합, 조속 마무리” 요청 |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서

지난 1일 이재명 대통령과 전국 시·도지사들과의 간담회가 진행된 가운데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완주·전주 통합’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관심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이날 이 대통령에게 “완주·전주 통합은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통합 절차

가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전북이 (정부에) 건의한 인센티브를 지역발전의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이 정확한 답을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행안부 장관의 주민투표 결정과 통합이 이뤄질 경우 특례지 지정을 비롯

한 통합 자치단체의 재정 인센티브 확대 등을 요청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 지사는 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산단)와 관련해 “전북은 RE100산단으로 지정 될 경우 전력망과 산단조성 등 3년 이내에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여건이 마련돼 있다”며 “전북을 RE100산단으로 우선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올림피아드 관련해서 “새만금 뱀바리를 통해 강력한 컨트롤타워와 신속한 의사결정, 초기 대응 등 여러교훈을 얻었다”면서 “단점은 보완하고 강점을 강화해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관심과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뉴시스

도내 10개 시군 호우 예비특보… 도, 비상 1단계 선제 가동

내일까지 도내 50~100mm 강우… 인명피해 우려 지역 사전 통제
휴가철 따라 계곡 등 물놀이 장소·야영장 등 대상 예찰·점검도
7일까지 추가 호우 예상… 시군과 협조해 재난 피해 최소화 총력

전북특별자치도가 집중호우에 따른 인명과 시설 피해를 막기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하고 대응 강화에 나섰다.

도에 따르면 3일 오전 10시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10개 시군에 호우예비특보가 내려졌다. 기상청은 5일까지 도내에 50~100mm(많은곳 15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도는 이 같은 기상 상황에 따라 둔치주차장, 지하차도, 하상도로, 하천변

산책로, 계곡 등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대해 사전 통제를 실시하고, 공사현장과 배수로 등 주요 취약 지점에 대한 점검·정비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하계 휴가철 기간에 따라 야영객 등 탐방객이 많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계곡 등 물놀이 장소, 야영장 등에 대해 예찰·점검을 실시하고, 호우 이전 안전한곳으로 대피하도록 안내하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할 방침이다.

호우 예보에 따라 산사태위험지역, 급경사지 인근 등 위험지역에 거주하

는 도민은 위험 징후 발견시 읍면동사무소 신고 및 마을회관 등으로 사전 대피하도록 안내하고, 논 물길 정비 등 농업 활동도 가급적 자제해 줄 것을 도민들에게 당부했다.

오백림 전북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 “계곡이나 하천 상류에서 갑자기 수위가 상승할 수 있으므로 야영이나 하천변 산책로, 지하차도 출입은 피해야 한다”며 “도민 여러분께서는 TV,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해 기상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안전 문자나 재난 알림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해주시기 바랍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7일까지 추가적인 호우가 예보돼 있는 만큼, 도 실국 및 시군과 협조 체계를 유지하며 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

멀티탭 화재, 여름에 집중
전북소방, 화재 주의 당부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가 여름철 멀티탭으로 인한 화재 주의를 강조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 5년(2020년~지난해)간 도내에서 발생한 멀티탭 화재는 모두 48건이다.

멀티탭 화재는 전력 수요가 늘어나는 여름철에 집중됐다.

전북소방본부는 △고출력 제품 단일 멀티탭 연결 금지 △멀티탭 용량 확인 및 전류량 초과 금지 △전선 손상 여부와 먼지 쌓임 점검 △미사용 멀티탭 플러그 분리 등 안전수칙 준수를 요청했다. /이만호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무주에 오면



특별한 맛과 즐거움이
기다립니다

